

<나의 삶 나의 하나님>

합판강대상

"제가 시무하는 활빈교회에 강대상 헌금 1백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강대상이 너무 불품이 없다고 교인 중 한 분이 새 강대상 구입비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도시가 아닌 어려운 농촌생활에서 1백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은 보통 정성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직회는 새 강대상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로 열띤 논의를 하다가 쓰던 강대상을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 강대상 구입을 위해 지정헌금 하신 분에게는 결정된 뜻을 잘 설명하여 섭섭한 마음이 없게끔 했습니다.

저희 교회 강대상은 아주 오래 전에 베니어 합판 두 장으로 만든 허름한 강대상입니다. 합판 두 장에 그 당시 가격으로 2만 원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2만 원짜리 강대상인 셈입니다. 그러니 초라하고 불품이 없습니다. 교인 중에는 웃으며 말하기를 강대상과 목사님이 꼭 닮았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농담이긴 하지만 그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대상을 펍 좋아합니다. 그 강대상에 서면 마음이 푸근하고 여유가 생깁니다. 저만 그 강대상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중에서도 그 강대상을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제가 교인들을 의식화시킨 꼴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강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인들의 신앙고백이 중요하다고 노상 강조하여 말해왔습니다. 별것 아닌 소리 같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에 연관되는 중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교회로 집회를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강대상에 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 교회의 강대상에 설 때마다 강대상이 너무 화려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북 어느 교회에서는 강대상에만 수천만 원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수천만 원짜리 강대상에 서서, 이 강대상 하나 비용으로 농촌 교회 몇 교회를 세울 수 있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강대상에 돈을 많이 들였다고 설교가 더 잘 되거나 교인들이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산 집행에 거부감을 느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있어도 더 붙어오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싼 강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금부처 모시듯 하지 말고 백성들의 상처받은 심령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김진홍 목사-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길보리교인" <b>길 보 리 교 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3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9월 30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추석이면 더욱 그리운 부모님 사랑



어느 전직 간호사의 수기입니다.  
내가 결혼전 간호사로 일할때의 일이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에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25살 남짓 되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손을 꼭 마주잡고 병원문앞에 서있었다. 아마도 모녀인듯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주머니..아직 진료 시작 될려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선생님도 아직 안오셨구요.."

내 말에 두 모녀가 기다리겠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마주 보았다.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채 작은 소리로 애기를 주고 받기도 했고..

엄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위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원장선생님이 오시고.. 나는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애..애가...제 딸아이예요... 에..옛날에.. 그니까..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외가에 놀러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네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지만... 근데.. 네...네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네요.. ..... 다음달에 우리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위될 녀석...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에미... 보잘것 없고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반지 끼울 손가락 주고 싶은게.. 이 못난 에미 바램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늘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수술이 가능한지.. .....

그 순간 딸도 나도 그리고 원장선생님도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원장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채..

"그럼요..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 할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말을 들은 두 모녀와 나도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었다

이국에서 맞는 추석입니다. 생존해 계신 부모님께서는 안부를, 세상 떠나신 부모님을 위해선 추도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5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0(시편 139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61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지찬영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시편 23:1-6(구 817)	인 도 자
특 송		청 년 부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 나의 목자 하나님(2) "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53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 좋으신 하나님 '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9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30/9	지찬영	박일영	김교섭 . 정희자	최재학 . 인치혁	최재학 . 노은숙
7일	송정섭	김교섭	김시욱 . 장선주	김영길 . 김시욱	박일영 . 임혜자
14일	신경화	김순자	김영길 . 신경화	김교섭 . 김성국	최윤희 . 송정섭
21일	인치혁	김영길	김종건 . 지찬영	김종건 . 박일영	김교섭 . 정희자
28일	임혜자	김종건	박일영 . 임혜자	인치혁 . 최윤희	김종건 . 지찬영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일예배 7:30 pm	금요일새벽기도: 6:00	학생, 청년부: 토요일 4:00
------------	---------------	---------------	-------------------

##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지난 1년 "성경완독1년" 완독자  
김교섭, 정희자, 지찬영, 노은숙
- 오늘은 사랑의 실천 "이삭줍기"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이삭줍기" 헌금은 World Vision의 1일 \$1이면 배부를 수 있는 기아를 위해 사용
- 내일은 추석: "한달음에 고향에 달려가고 싶지만... 추석을 맞아 추석예배 모범을 사용하여 추석예배 혹은 부모님을 위한 추도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문 사용)  
\*오늘 교제의 시간에 송편을 나누며 추석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송편을 제공하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
- "믿음의 어머니" 특별기도 모임  
\*지난 3주간 '믿음의 어머니' 특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기도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10월 7일(화) 저녁 7:30
- 구역예배: 방학을 지낸 둘째주일에 갖겠습니다.
- 청년부에서 감사 인사  
\*지난주일 청년부 기금을 위한 Sausage Sizzle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의 인사입니다.
- Mail 전도지: 평소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우편으로 전도지를 보내십시오  
전도지를 한인 사업장에 비치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등록하심을 기뻐합니다  
\*박상옥, 이금선 집사. ☎ 478-2611 ☐ 31 Knights Rd. Rothesay Bay  
\*윤형권, 신영화 집사. 새미 ☎ 021-169-8778
- 교우소식:  
\*박은지(학생부): 일본 자매학교 방문중  
\*박일영 집사: 한국방문위해 3일(수) 출국
- 10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7일		
14일		구역예배(12) 연합부흥회(18-20).
21일		
28일		
30일	이삭줍기 봉헌	교사기도회(31일)